

<조완벽전>과 <최척전>에 그려진 민간인 포로 형상과 해양체험

권혁래*

<目次>

I. 머리말	III. <최척전>에 그려진 민간인 포로
II. <조완벽전>에 그려진 민간인 포로	옥영의 항해와 베트남 항구
조완벽의 항해와 베트남 체험	1. 민간인 포로와 베트남
1. 무역선원 조완벽의 원양항해와	체험을 제재로 한 <최척전>
베트남견문	2. 옥영의 원양항해와 베트남
2. 남양견문: 해류와 유통	항구에서의 상봉 장면
	IV. 맺음말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포로실기 <趙完璧傳>에 기록된 임진왜란 민간인 포로 조완벽의 항해와 해양체험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위한의 소설 <최척전>의 포로서사 및 문학공간 설정이 <조완벽전>과 어떻게 상관있는지에 대해 상론하였다.

이수광은 항해노정 중, 조완벽을 무역선원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항해 도중 겪은 특이한 일들을 주로 기술하였다. 이수광은 항해노정 중 일본 사츠마주, 중국 광동성, 베트남 홍옌, 필리핀[呂宋], 류큐(琉球) 등의 주요 지명과 원양항해기

* 용인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 hrkwon3@hanmail.net.

법을 비중 있게 기록하였다. 남양견문에서 해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세게 흐르는 것에 대해 “서쪽 바다의 수위가 높고 동쪽이 낮아 그렇다(海水西高東下)”고 한 인식은 독특하다. ‘游龍’ 이야기는 ‘용오름 현상’에 대한 것으로, 당시 뱃사람들이 토네이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여준다.

조위한은 조완벽, 이수광 등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조완벽전>을 읽고 <최척전>을 구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위한은 <조완벽전>에서 민간인 포로라는 주인공 형상, 나가사키·바다·무역선·베트남항구라는 문학공간, 민간인 포로의 고국귀환이라는 주제 등의 면에서 제재를 얻고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조위한은 옥영의 ‘베트남행’을 그리면서 항해노정이나 해양체험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고, 베트남 항구에서의 극적인 부부상봉 장면과 선한 일본인 주인공 형상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인 포로의 고국 귀환’이라는 주제를 실현하였다.

【주제어】 <조완벽전>, <최척전>, 민간인 포로, 해양체험, 무역선, 나가사키, 베트남[안남], 흥옌[興安]

I. 머리말

바다와 해양체험에 관한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필 수 있을까? 조선시대 이전에 고구려·백제·신라 및 통일신라, 고려는 자유롭게 해상왕래하며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교역활동을 하였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해상봉금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체의 민간해외무역이 금지되었고, 조선인들은 섬과 육지 간 왕래나 연안어업이나 운송, 조운선 외에는 바다를 체험할 수 없었고, 공식적으로는 사행선에 올라탄 사람이 아니면 遠洋이나 바다 건너의 세상을 경험할 수 없었다. 이들이 전하는 기록 외에 현전하는 조선시대 해양체험에 대한 기록은 거의 대부분 표류기나 귀환포로들의 실기류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바다 및 해양체험에 관한 기록

은 해로사행단의 일원이거나, 표류를 경험했거나 귀환포로들의 견문담이나 경험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포로실기 <趙完璧傳>에 기록된 임진왜란 민간인 포로¹⁾ 조완벽의 항해와 남양체험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위한의 소설 <최척전>의 포로서사 및 문학공간 설정이 <조완벽전>과 어떻게 상관 있는지에 대해 상론할 것이다.

진주 선비 조완벽은 1597년 약관의 나이에 일본군에게 잡혀 교토에 끌려가 1607년 조선 사절단에 의해 귀국하기까지 10년을 일본에서 체재하였다. 한문을 잘하였던 그는, 선단을 이끌고 남방무역을 하던 일본인 선주와 무역선에서 일 년 동안 문서작성 업무를 해주면 풀어주겠다는 계약을 맺고 1604년 베트남을 다녀왔다. 하지만 선주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두 번을 더 배에 타게 했다. 이로 인해 조완벽은 1604년부터 1606년까지 매년 무역선을 타고 세 차례나 동남아시아 바다를 항해하고 류큐[琉球], 베트남[安南], 필리핀[呂宋] 등지를 방문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였다. 1607년 그는 조선의 쇄환사 呂祐吉을 따라 귀환하였고, 고향 진주로 돌아와 살던 조완벽은 당시 진주지역에서 察訪 벼슬을 하던 金允安(1562-1620)을 만나 그의 이국체험을 전하였고, 鄭士信(1558-1619)과 李堧(1560-1635)은 1611년 봄 한양에 올라온 김윤안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각각 <조완벽전>과 <記趙完璧見聞>을 지었다. 李晔光(1563-1629)은 정사신과 이준의 글을 보았고, 또 조완벽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두고 1611-1614년 사이에 <조완벽전>을 지었을 것으로 파악된다.²⁾

조완벽에 대한 기사는 慶暹의 『海槎錄』, 鄭士信의 『매창선생집』, 이수광의 『芝峯先生集』과 『芝峯類說』,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德懋의 『

1) 그동안 조완벽에게는 '피로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용어는 어렵고 오늘날 잘 쓰이지도 않는다. 필자는 이 용어 대신, 사전에서 검색되는 '민간인 포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2) 권혁래, 「<조완벽전>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2008, pp.207-211.

靑莊館全書』, 安鼎福의 『목천현지』,李志恒의 『漂舟錄』 등에 전한다. 이 중에서 본격적 의미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사신과 이수광, 안정복이 지은 <조완벽전>이다. 18세기에 안정복이 지은 <조완벽전>은 이수광의 전과 부분적으로 자구의 출입이 있으나, 이수광의 전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파악된다.

<조완벽전>은 한국의 역사학과 국문학과, 일본의 학계에서 공히 관심을 갖고 연구된 작품이다. 역사학과에서 <조완벽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일본인 岩生成一이다. 그는 안정복의 『목천현지』 수록 <조완벽전>을 텍스트로 하여 안남국 문리후와 안남국에 입항한 일본인 선주 간에 주고받은 문서를 고찰하여 조완벽의 倭主가 교토의 거상으로 朱印船³⁾ 무역에 종사하던 스미노쿠라 료이(角倉了以:1554-1614)이며, 스미노쿠라 료이의 주인선이 1604년부터 1612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매년 안남국 응에안성(父安省) 흥원현[興元縣]에 있는 항구를 통해 통킹(東京; 지금의 하노이)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조완벽이 주인선에서 1604년부터 1606년까지 3년간 문서작성 업무를 수행한 점, <조완벽전>에 기록된 일본선박, 항해, 베트남체험의 내용을 각종 문헌 기록과 대비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고증하였다.⁴⁾ 이 연구는 <조완벽전>에 기술된 조완벽의 무역선 동승과 베트남항해, 건문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하우봉은 해양사관의 관점에서 <조완벽전>이 17세기 초반 조선과 베트남, 베트남과 일본의 교류사 및 베트남의

3) 朱印船이란 일본의 통치자가 발급한 무역허가증인 朱印狀을 받아 해외무역업무를 담당한 선박을 말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1601년 안남, 스페인령 마닐라, 캄보디아, 시암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604년에 주인선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1635년까지 350척 이상의 일본 선박이 朱印狀을 얻어 해외로 나갔다. 주인장에는 상세한 항해 목적지와 날짜가 적혀 있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 (朱印船, 일본 위키피디아)

<https://ja.wikipedia.org/wiki/%E6%9C%B1%E5%8D%B0%E8%88%B9>. 2018. 12. 20.

4) 岩生成一, 「安南國渡航 朝鮮人 趙完璧傳」について, 『朝鮮學報』 6, 奈良: 朝鮮學會, 1954, pp.1-12.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⁵⁾

김태준은 岩生成一의 논문과 당시 이탈리아 가톨릭 수사가 쓴 관련 기록을 검토하면서 완벽과 기리시탄, 그리고 당시 동남아로 노예로 팔려나간 조선 민간인 포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⁶⁾ 이채연은 <조완벽전>의 서술 초점이 이국의 풍물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조완벽이 체험했던 사건의 진귀성 때문에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⁷⁾

<조완벽전> 및 前 근대시기 한국-베트남 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박희병은 북경에서의 이수광과 베트남 사신의 한시수창과 <조완벽전> 등의 기록으로 인해 조선지식인 사회에서 베트남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생기고 지식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였다.⁸⁾ 김용태는 서거정, 이수광 등이 북경에서 베트남사신과 한시를 수창하면서 보편적 유대감을 나누었으며, 조선후기에 <조완벽전> 및 <표해시말> 등을 통해 베트남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⁹⁾ 이에 반해, 서경희와 정규식은 <조완벽전>에 나타난 정사신, 이수광 등의 베트남인식이 부정적이며, 조선의 당대 지식인들이 조완벽의 해외체험을 내부결속에 이용하고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삼지 못했다고 비판하여 대조적인 견해를 보였다.¹⁰⁾

한편 <조완벽전>의 창작과정에 대해 손찬식은 이수광이 북경에서 베

-
- 5) 하우봉,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 『일본사상』 10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6, p.228.
 - 6) 김태준, 「정유년 포로 조완벽과 기리시탄」, 『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동점』, 한국연구원, 1977, pp.289-298.
 - 7)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pp.163-166.
 - 8) 박희병, 「조선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pp.159-176.
 - 9) 김용태, 「한국 한문학 자료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의 몇 가지 갈래」, 『한문한문학연구』 45, 2010, pp.271-301.
 - 10) 서경희, 「“조완벽전”에 나타난 이방, 이방인서사의 의미」, 『동방학』 25,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2, pp.59-99; 정규식, 「<조완벽전>을 통한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해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방학』 39,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8, pp.1-32.

트남사신과 한시를 수창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사신의 <조완벽전>을 보완해 새로 전을 지었다고 하였으며¹¹⁾, 권혁래와 남미혜는 정사신의 <조완벽전>을 바탕으로 이수광이 조완벽을 직접 만나 새로운 정보를 얻어 <조완벽전>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¹²⁾ 장효현은 <최척전>에서 옥영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다가 베트남에서 최척과 만나고 중국에 들어가 사는 대목이 <조완벽전>과 유사하다고 하였고,¹³⁾ 권혁래 역시 조완벽의 일본-베트남 간 행적이 <최척전>의 공간 설정 및 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¹⁴⁾

남미혜는 岩生成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학과 국문학계, 일본 학계의 연구성과¹⁵⁾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조완벽의 가계와 생애 및 일본에서의 활동, 무역선을 타고 베트남 등지를 견문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고증하였다. 남미혜에 의하면, 조완벽은 본관이 林川이며, 연산군에게 화를 입은 知足堂 趙之瑞(1454-1504)의 종손으로, 남명 조식의 집안과 혼인관계로 연결된 진주 세거 양반의 일원이었다. 그의 집안은 당시 진주의 명문세족들과 지속적으로 통혼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완벽은 1577년 전후에 출생하였으며, 1597년 정유재란 때 약관의 나이로 일본으로 잡혀가 10년 뒤 1607년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이후 1642년까지 고향 진주에서 생존했음이 확인되므로, 사망은 1642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조완벽은 65세 이상 생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남미혜는 또한 조완벽의

11) 손찬식, 「<조완벽전>을 통해 본 지봉 이수광의 월남 인식」,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pp.215-247.

12) 권혁래, 앞의 논문, pp.210-211. 남미혜, 「17세기 피로인 조완벽의 안남 체험」, 『한국학논총』 4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6, p.199.

13) 장효현, 「<최척전>의 창작기반」, 『고전과 해석』 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6, pp.149-165.

14) 권혁래, 앞의 논문.

15) 남미혜가 소개하고 활용한 일본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林屋辰三郎, 『角倉了以とその子』, 京都: 星野書店, 1944; 片倉穰, 「趙完璧伝の一研究」, 『朝鮮とベトナム, 日本とアジア: ひともの情報の接触 交流と対外観』, 東京: 福村出版, 2008 외.

16) 남미혜, 「정유재란기 피로인 조완벽의 가계와 삶」, 『이화사학연구』 50, 이화사

倭主이자 朱印船 선주 스미노쿠라 료이(角倉了以)와 만아들 스미노쿠라 소안(角倉素庵, 또는 角倉與一:1571-1632)의 가계 및 무역활동을 자세히 고찰하고, <조완벽전>의 텍스트들을 대비하고, 완벽이 탔던 무역선의 규모, 항해활동, 베트남건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¹⁷⁾

이상의 연구를 통해 조완벽이 진주의 명문가의 후예이며, 일본에 잡혀가서는 1604년부터 1606년까지 교토의 영향력 있는 상인이자 당대의 명문가로 유교적인 소양이 풍부한 집안인 스미노쿠라 가문에 노예로 있으면서 스미노쿠라 료이의 주인선을 타고 베트남 등지를 다녀왔으며, 1607년 귀국 후 진주에서 벼슬을 하던 김윤안에게 자신의 겪은 일을 이야기했으며, 김윤안이 구술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1611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정사신, 이준, 이수광 등이 <조완벽전> 등을 기록하여 조선 지식인들에게 베트남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밝혀졌고, <조완벽전>을 바탕으로 조위한이 <최척전>을 구상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사를 바탕으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를 논할 것이다. 첫째, 조완벽의 해양체험에서 덜 밝혀진 점, 곧 베트남까지의 항해노정과 남양체험에 대해 좀 더 고찰할 것이다. 둘째, <조완벽전>이 조위한의 <최척전> 창작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조완벽전>의 텍스트는 이수광의 <趙完璧傳>(『芝峰集』卷23), 정사신의 <趙完璧傳>(『梅窓集』卷4)이며, 번역문과 원문의 인용은 임형택의 『한문서사의 영토1』에 수록된 글을 사용할 것이다.¹⁸⁾

학연연구소, 2015, pp.235-266.

17) 남미혜, 앞의 논문(2016), pp.193-228.

18)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1』, 태학사, 2012, pp.253-264(번역문), pp.481-484(원문).

Ⅱ. <조완벽전>에 그려진 민간인 포로 조완벽의 항해와 베트남 체험

1. 무역선원 조완벽의 원양항해와 베트남견문

이수광이 <조완벽전>의 앞부분에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진주 선비 조완벽이 약관에 1597년 적에게 붙잡혀 교토로 끌려갔다.
- ㉡ 그는 포로 신세가 몹시 괴로워 고향으로 도망쳐 돌아갈 뜻이 있었다.
- ㉢ 당시 왜인들은 배를 타고 남방 지역으로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였다.
- ㉣ 왜인 선주가 조생이 한문을 잘하는 것을 알고 무역선에 태우고 다녔다.
- ㉤ 조생이 1604년부터 3년 간 세 번 안남국까지 항해하였다.

여기까지가 진주 선비 조완벽이 20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잡혀가 무역선에 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무역선에 오른 조완벽은 포로나 書記라기 보다는, 무역선원의 일원인 모습이 부각된다. 이는 이수광이 조완벽의 행적에서 원양항해 및 베트남 견문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위 내용 뒤로는 일본에서 베트남까지의 항해노정, 그리고 항해 도중 겪은 특이한 일들이 주로 기술되어 있다.

- ① 안남 땅은 일본에서 바닷길로 3만7천 리다. 薩摩州에서 출항하면 중국의 漳州, 廣東을 거쳐 안남의 興元縣에 당도한다. 이곳은 그 나라의 통경(東京, 하노이)에서 80리 거리로, 그 나라 수도이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 하나는 安南國이고 다른 하나는 交趾國인데, 서로 싸워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밑줄은 필자 강조)
- ② 일본에서 주야로 40일 혹은 50, 60일을 항해해야만 비로소 안남 땅에 닿을 수 있다. 돌아올 때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항해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15일이면 일본 땅에 닿을 수 있다.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자면 바람을 이용하여 매년 3, 4, 5월이라야 갈 수 있고 6월 이후에는 갈 수가 없다.

- ③ 배 또한 왜선은 작아서 큰 바다로 운행하기 어렵기에 白金 80냥으로 唐船을 구입하는데, 이 배에는 180여 명이 탈 수가 있다.唐人으로 바닷길에 익숙한 자를 선주로 삼아서 지남침을 이용해 동서의 방향을 잡고, 밧줄을 아래로 드리워 바다 밑의 흙을 끌어올려서 흙 색깔을 보아 방위와 원근을 분별하곤 하였다. (p.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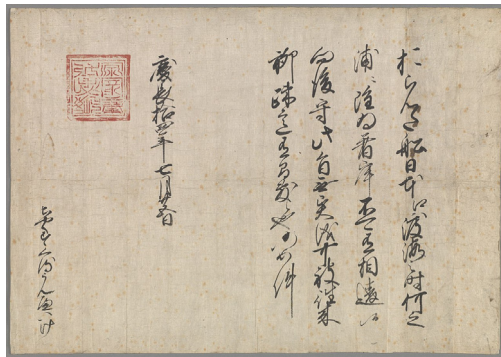
①에 밑줄친 부분은 “살마주에서 출항하면”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由薩摩州開洋”는 “살마주(일본 九州의 최남단 가고시마)에서부터 큰 바다로 접어들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사츠마주에도 전 시대에 밀무역에 주로 쓰이던 보노츠(坊津)라는 항이 있으니 여기서 출항해도 안 될 것은 없지만, 1601년부터 동남아 지역과의 무역에 쓰인 주인선은 반드시 나가사키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살마주에서 출항하였다”는 번역은 옳지 않다. 곧, 나가사키항에서 출항하여 남으로 사츠마주까지는 연안항해를 하고, 사츠마주에서부터 명나라로 향하는 큰 바다로 접어든다는 의미가 맞는 것이다.

살마주, 장주, 광동, 흥연현이라는 지명은 정사신의 전에는 없고, 이수광의 전에만 등장한다. 이러한 지리정보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수광이 조완벽을 직접 만나 듣고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베트남에 입항한 곳이 수도 통킹과 가까운 興元이라고 기록한 점은 흥미롭다. 조완벽은 자신이 3년 동안 항해했던 일본 나가사키부터 사츠마, 중국, 동남아시아의 원양, 베트남의 국제무역항 흥연, 필리핀 등지까지의 항해노정과 바다체험, 흥연에서 물건을 사고판 행위까지 자세히 말했을 것이다. 정사신은 김윤안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노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 이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고 “여자들이 남편에게 받은 금과 은으로 그해가 다 갈 때까지 사고파는 행위를 일상으로 했다”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수광은 베트남까지의 항해노정 중 주요 지명과 여송[呂宋; 지금의 필리핀 루손], 琉球에 대해, 항해노정에 대해 기록하였다. 원양항해기법에



<그림 1> 17세기 일본 주인선의 동남아 운항항로



<그림 2> 도쿠가와가 발부한 주인장(朱印狀). 네덜란드 국립공문서관 소장본

대해 정사신과 이수광은 후풍인이 指南針, 鐵鏈, 五兩扇, 日影臺 같은 기구를 이용해 바람의 방향을 잡고, 해당지역을 파악했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조완벽과 김윤안, 정사신, 이수광 등이 공히 일본 주인선의 원양항해술에 관심을 가져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은 일본에서 작성한(출처: 일본 위키피디아) '17세기 일본 주인선의 동남아 운항항로'인데, 스미노쿠라의 주인선은 지도 맨 위쪽에 그려진 항로로 운항하였다. <그림2>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발부한 朱印狀으로, 이것이 없으면 일본의 해외무역업자들은 일체의 해외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인용문②에서는 항해일이 일본에서 출발할 때는 40~60일이 걸리고, 베트남에서 출발할 때는 15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는 17세기에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왕래하던 배들은 거의 모두 몬순 계절풍과 쿠로시오 해류(黑潮)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한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조완벽이 댕던 주인선은 1605년에는 3월에, 1606년에는 4월 18일에 안남국 응에안성(乂安省) 흥옌현에 입항하였다. 주인선은 조완벽이 조선으로 귀국한 뒤에도 운항을 계속하였는데, 1609년에는 6월 11일경 通商을 마치고 귀국 도중 난파를 당하기도 하였고, 1610년에는 5월 13일에 흥옌의 항구에 입항하였



<그림 3>
末次船復元模型



<그림 4>
朱印船 (末次船, 寛永年間)

다.19) 이처럼 주인선은 3~5월 동안 베트남 흥옌현 항구에서 정박하였고, 6월경 출항해 나가사키로 돌아왔다.

인용문③에서는 스미노쿠라의 주인선이 중국에서 구입한 180여 명이나 탈 수 있는 대양함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조완벽은 <그림3>(복원모형)과 <그림4>와 같은 형태의 배에서 180명 이상의 선원들과 수개월 동안 기거하였을 것이다. 선주는 원양항해를 해본 적 있는 명나라 사람을 선장(또는 항해사)으로 고용하여 방향과 원근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면 조완벽이 승선한 주인선은 일본인 선주[角倉了以]가 발주해서 중국에서 건조한 대형무역선이며, 중국인 항해사[候風人]와 조선인 서기[趙完璧], 백수십 명의 일본인, 동남아 선원 등 다국적 인물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3만7천리의 해양을 운행한 국제무역선임을 알 수 있다.20) 조완벽은 베트남의 흥옌항에 도착해서는 그 일대에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문리후, 선비들이 베푼 잔치에 초청을 받고 교류하였으며, 베트남의 정세, 문화, 풍속, 소산물 등을 관찰하였다.21) 요컨대, 조완벽은 대형무역선을

19) 岩生成一, 앞의 논문, pp.4-5; 남미혜, 앞의 논문(2016), p.207.

20) 안남의 지리와 각창선의 선주 角倉了以에 관해서는 林屋辰三郎(1944)의 책, 岩生成一(1954), 남미혜(2016)의 논문에 자세히 고증되어 있다.

21) 조완벽이 베트남체류 기간 동안 견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권혁래(2008), 남미혜(2016) 등의 논문을 참고할 것.

타고 일본, 중국인 및 다른 동남아 선원들과 함께 3년이나 동남아해로를 오가며 해외체험을 한 무역선원인 것이다.

2. 남양견문: 해류와 游龍

조완벽의 남양체험 중 해류에 관한 기록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바닷물은 서쪽이 높고 동쪽은 낮다.(海水西高東下)”는 조완벽의 전언이다. 이 부분은 다른 이본에는 없고, 오로지 이수광의 전에만 있다. 해당 본문은 다음과 같다.

- ④ 조생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바닷물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광동에서 70리 거리에 있는 바다에 계룡산이 있는데, 산은 아주 높고 험하며 땅은 온통 나지막하다. 계룡산 동쪽으로 물이 꺾여 흐르기 때문에 배로 가기에 매우 위험하다. 반드시 계룡산 안쪽으로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쓸려가서 동쪽 바다까지 가야 멈출 수 있다. 대개 물의 형세가 이처럼 사납고 급한 것이다.²²⁾ (밑줄은 인용자 강조)

위 인용문은 광동성에서 70리 거리에 있는 계룡산이 있는 섬 주위의 ‘海流’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보인다. 계룡산이란 ‘높은 산이 있는 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섬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아무튼 계룡산이 있는 섬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며 거세진다는 것이다. 배가 그 해류에 휘말리면 휩쓸려가서 동쪽 바다에까지 가서야 멈추는데, 그 까닭을 “서쪽 바다가 높고 동쪽은 낮기”(海水西高東下)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지식으로 보면 서쪽 바다의 수위가 높고 동쪽이 낮아 해류가 동쪽으로 거세게 흐르는 일은 당연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해류에 관한 이러한 기술은 백과사전적 저술에 힘쓰던

22) 生又言，海水西高東下。距廣東七十里，海中有鷄龍山，山極高峻，地皆淺灘。鷄龍山之東，水折而東走，舟行甚艱，必由山內以過，不然則漂流，至東海乃止。蓋水勢悍急如此。

이수광이 다른 자연과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뱃사람들의 생각을 특이하게 여겨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조완벽은 자신이 항해 중 겪은 기괴한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정사신은 여자와 비슷한 괴물, 큰 고래, 용에 대해, 이수광은 '유룡'에 대해 기록하였다. 유룡은 '승천하는 용'을 말한다. 용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는 항해 중에 기괴한 일을 많이 보았다. 바다에는 유룡이 예사로 출몰하는데, 한번은 수십 보 안에서 검푸른 용이 갑자기 나타나 뱃사람들이 모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이윽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펼쳐지고 오색 무지개가 나타나더니 우박이 떨어지고 파도가 끓어오르듯 솟구쳤다. 배가 위아래로 흔들려 거의 전복될 지경에 이르기를 서너 차례나 하였다. 대개 용이 솟구쳐 하늘로 오르려다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수광)
- ② 대개 남방의 바다에는 항시 안개가 끼고 비가 오기 때문에 해중에 큰 용이 많다고 한다. 바다에 있는 용은 필시 무슨 물건에 의지해 제 몸뚱이를



<그림 5> 플로리다 주 키스 군도 인근의 바다에서 나타난 용오름.

(사진: Joseph Golden, NOAA)

걸친 연후에라야 구름을 얻어 변신하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마련이라고 한다. 용이 배 위에 몸뚱이를 걸치는 일이 생기면 배는 전복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뱃사람들은 용이 출현해서 다가오면 기겁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정사신)

- ③ 뱃사람들은 매양 용을 만나면 급히 유황이나 닭털을 태우는데, 용이 그 냄새를 싫어해서 피해 간다고 한다. 이날도 다급한 판에 닭 수십 마리를 산 채로 잡아서 불 속에 던져 태웠다. 그래도 용이 배에 접근해 와서 사람들은 총 수십 정에 장전을 해서 일시에 발사하니 용은 그제야 물속으로 사라져서 마침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이수광)

정사신과 이수광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용은 안개와 비가 많은 바다에서 출현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는 ‘용오름’ 현상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용오름’(waterspout) 현상은 주로 태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물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이다. 일반적으로 토네이도가 육지에서 먼지나 잔해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달리, 용오름은 물을 빨아들이지만 용 깔대기형 구름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용오름은 비록 육지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에 비하면 약하지만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작은 배를 부수며 큰 배에도 피해를 입힌다.²³⁾ ③에서 보듯, 뱃사람들은 용오름 현상을 살아 있는 용의 조화로 보고 유황과 닭털을 태우고, 총을 쏘아 용을 물리친다고 한 것이다.

조완벽이 표현한 용 이야기는 각창선의 뱃사람들이 용오름 현상, 곧 토네이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술한 정사신이나 이수광도 바다의 토네이도를 본 적이 없으므로 비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23) ‘용오름’,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9XXXXX00463>. 2018. 12. 20.

Ⅲ. <최척전>에 그려진 민간인 포로 옥영의 항해와 베트남 항구

1. 민간인 피로와 베트남 체험을 제재로 한 <최척전>

<최척전>은 趙緯韓(1567-1649)이 1621년에 지은 한문소설로, 16-17세기 임진왜란, 심하전투 등의 전란 속에서 최척 부부의 사랑과 가족의 이산재회를 그린 작품이다. 조위한은 사실과 허구, 현실과 꿈을 교묘하게 교직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²⁴⁾ 소설의 주인공 옥영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민간인 포로'요, 최척은 '망명자'이자 심하전투의 '전쟁포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최척전>은 '(민간인·전쟁) 포로의 고통과 귀환'을 주제로 한 서사라 할 수 있다.

<최척전>의 문학공간은 흥미로운 점이 많다. 특히 작품의 서사 화폭에 그려진 동아시아의 다양한 공간은 이전의 서사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었다. 조위한은 주인공 최척의 유랑 및 옥영의 포로생활을 통해서 일본의 낭고사(狼姑射), 명나라 절강성의 소흥항주, 베트남의 어느 항구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을 문학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문학공간은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 필자는 이것을 조위한이 이수광의 <조완벽전>에 그려진 일본의 나가사키, 주인선, 바다, 베트남의 흥옌 등의 장소, 崔溥(1454-1504)의 『漂海錄』 등에 보고된 표류, 중국의 영과, 소흥, 항주, 운하 등의 장소를 소설의 화폭에 넣어 상상력을 펼친 결과라고 본다. 특히 옥영의 일본피로 및 원양항해, 무역선을 타고 베트남의 어느 항구에서 남편과 헤어한다는 대담한 상상력은 <조완

24) 이에 대해서는 박희병의 「최척전-16-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민영대의 『조위한의 삶과 문학』(아세아문화사, 1993), 양승민의 「<최척전>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등에 자세히 고찰되어 있다.

벽전>의 독서경험이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하기 힘들다.

작가들의 연배를 보아도 조완벽(1577?-1642?)의 포로실기를 지은 정사신(1558-1619), 이준(1560-1635), 김윤안(1562-1620), 이수광(1563-1628) 등의 인물과 조위한(1567-1649)은 모두 10년 터울의 동시대 인물이다. <조완벽전>이 지어진 1611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위한은 1609년(광해1) 43세에 增廣試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에 진출한 뒤, 成均館典籍, 佐郎兼春秋館記事官, 禮曹正郎, 知製教, 禮部郎中, 謝恩使 書狀官, 北靑判官 등을 역임했으며, 1613년(광해5) 癸丑獄事에 연루되어 파직 당한다.²⁵⁾ 그로부터 5년 뒤 그는 52세 되던 1618년(광해10) 2월, 가족을 이끌고 남원으로 이주하고, 1621년 <최척전>을 지었다.

1607년 고향 진주로 돌아온 조완벽에게서 진주 찰방 김윤안이 이야기를 듣고, 김윤안이 1611년 한양으로 올라왔을 때, 정사신, 이준, 이수광 등이 김윤안으로부터 조완벽의 일을 전해 듣고 전을 지은 해는 1611~1614년 사이이다. 이 시기는 조위한이 대과에 급제해서 한창 중앙관료생활을 하던 기간(1609~1613년)과 대개 일치한다. 조위한은 이 기간 동안에 <조완벽전>을 읽거나 조완벽의 피로 및 베트남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조완벽전> 독서가 조완벽이 파직된 1613년부터 남원으로 이주하는 1618년 2월 사이에, 또는 남원으로 이주한 이후에 이뤄졌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위한은 임진왜란(1592-1599)의 사건과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인들의 귀환, 사르후전투·심하전투(1619)의 사건과 이후 전쟁포로들의 귀환 등의 역사적 사건을 주요 제재로 하여 <최척전>을 창작하였다. 소설의 문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위한은 전란의 전말을 자세히 서술하거나 史評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공 최척과 옥영의 인생사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구성하고 그들이 개입된 전란의 한 장면을 끌어오는 방식을 취한다. 소설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민간인

25) 민영대, 「<최척전> 연구」, 경남대 박사논문, 1991, p.31.

포로'와 '망명자' 및 '전쟁포로'다. 옥영은 정유재란 중 일본으로 잡혀간 민간인 포로이며, 최척은 정유재란 때 가족을 잃고 중국으로 간 망명자요, 사르후전투 때 명나라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후금군에 잡힌 전쟁포로이다. 옥영의 삶에 한정해 본다면, 민간인 포로 옥영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녀는 뒤에 베트남으로 갔다가 일본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어 남편 최척과 함께 중국 절강성 항주에 가서 살게 된다. 여기서 관건은 옥영이 어떻게 일본주인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조완벽전>과 대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옥영의 원양항해와 베트남 항구에서의 상봉 장면

최척의 아내 옥영은 1597년 지리산 계곡에서 왜군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 낭고사로 잡혀간다. 조위한이 '낭고사'라는 지명을 떠올린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최척전>에 표기된 '狼姑射'라는 도시이름이 나가사키 [長岐]를 음차한 것임을 논증한 바 있다.²⁶⁾ 일본에 붙잡혀간 주인공이 낭고사[나가사키]라는 도시에서 무역선을 타고 베트남으로 항해한다는 <최척전>의 포로서사는 <조완벽전>의 그것과 흡사하다. 필자는 조위한이 '나가사키'-<조완벽전>에서 읽고 귀국한 민간인 포로들에게서 들었을지도 모르는-라는 도시의 '장소성'-조선 포로들을 사고파는 노예시장이 열리고 주인선의 출발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옥영이라는 민간인 포로가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서사를 기획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소설 <최척전>에서 남장을 하고 있던 옥영은 나가사키에서 3년 동안 살았다. 사랑하는 남편과 갓난 아들의 생사도 모른 채 일본에 잡혀온 옥영은 진주 선비 조완벽보다 더욱 절망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낙담한 옥영이 살 뜻을 잃고 목숨을 버리려고 했을 때, 돈우라는 일본 船主는 옥영의 목숨

26) 권혁래, 「<최척전>의 문학지리학적 해석과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pp.28-29.

을 구해줬을 뿐 아니라, 여린 몸을 불쌍히 여겨 집안일을 돕게 하였고, 뒤에는 자신의 배에 태워 주방일을 돕게 하고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와 베트남을 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소설에는 돈우와 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많지 않지만, 현실에 대비해보면 돈우는 주인선의 선주이고, 옥영은 주인선에 승선한 무역선원이다. 물론 돈우의 배는 일본 막부로부터 주인장을 발급받아 명나라, 베트남 등지로 원양항해를 하는 무역선임이 분명하다.

<최척전>에서 옥영의 무역선 항해에 관한 서술은, “돈우는 옥영을 더욱 불쌍히 여겨 잘 보살펴 주고, 그녀에게 ‘沙干[일본에 따라서는, 沙于]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다. 돈우는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항해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옥영에게는 뱃일을 돕게 하였다.”는 내용이 전부일 정도로 소략하다. <조완벽전>에 기술된 항해체험과 해류, 기이한 일에 대한 기록은 <최척전>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다. 180여 명이 승선한 <조완벽전>의 대형무역선은 <최척전>에서는 마치 돈우와 옥영, 둘만 탄 것 같은 ‘작은 배’처럼 그려졌다. 이보다 중요한 차이는, <조완벽전>의 왜주가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조완벽에게 3년 동안 고된 뱃일을 시키지만, <최척전>의 왜주 돈우는 불심이 돈독하며 옥영을 측은히 여겨 배려하는 인자한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최척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베트남 항구에서 이뤄진 최척·옥영 부부의 ‘만남의 서사’이다. 1600년 봄, 옥영이 탄 상선은 다른 일본상선 10여 척과 함께 베트남의 어느 항구에 입항해 있었는데, 그날 밤 최척이 탄 중국 무역선이 같은 항구에 정박하면서 극적인 상황이 그려진다.

경자년(1600) 봄, 척은 주우를 따라 같은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배 십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10여 일을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바다는 비단결같이 고왔고 바람도 불지 않아 잔잔하였다. 사방에 소리 하나 없고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으니 뱃사람들은 깊이 잠들고 물새만 이따금 울고 있었다. (중략) 그때 일본 배에서 엽불하는 소리가 똑 그치더니, 이윽고 조선말로

칠연절구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략) 두 사람은 서로 보고 놀라 껴안고 모래 사장을 떼굴떼굴 굴렀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이 다하여 피가 흘러내렸으며,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²⁷⁾(밑줄 표시는 인용자 강조)

차를 팔기 위해 중국의 상선을 타고 베트남의 어느 항구에 입항한 최척은 1600년 4월 2일 밤, 포구에 정박해 있던 일본선박에서 누군가 조선말로 한시 읊는 소리를 듣는데, 그 한시는 그의 아내 옥영이 예전에 지은 것이었다. 최척은 노심초사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일본선박으로 달려가 오매불망하던 아내를 만난다.

일본선박이 10여 척 정박해 있고, 중국선박이 입항한 베트남의 이 항구는 국제무역항임이 분명하다. 베트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을 조위한은 베트남의 국제무역항을 어떻게 알고 주인공들의 해후장소로 설정하게 된 것일까? 1597년 정유재란 이후 생사를 모른 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부부가 제3국의 항구에서 해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두 사람의 시간과 공간이 합치되지 않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이 해후의 장면은 순전히 조위한의 간절한 열망을 투영한 상상력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현실적 제재를 소설화하면서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장소를 소설의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개연성이 없고 감흥이 없다. 그런데 조위한은 이수광의 <조완벽전>에서 베트남의 흥연에서 문리후 정초와 선비들이 민간인 포로 조완벽을 환대한 장면이나, 베트남의 순수한 풍속, 풍부한 토산물, 이수광이 시집이 워히고 학동들이 독서하는 풍습을 인상 깊게 보고 베트남을 자신의 소설에서 이국적이면서도 중요한 서사가 이뤄지는 무대로 삼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된 것만 보자면, 조선인 중에 베트남을 직접 가본 사람은 조완벽이

27) 歲庚子春 陟隨佑 與同里商舶 往賈於安南. 時有日本船十餘艘 亦泊于浦口. 留十餘日 因值四月 旁死魄 天無寸雲 水光如練 風息波恬 聲沈景絕 舟人牢睡 渚禽時鳴 (中略) 二人相見 驚呼抱寺 宛轉少中 聲絕氣塞 口不能言 淚盡繼血 目無所覩 (박희병 표점·교석, <최척전>,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pp.434-436)

처음일 것이다. 이 이름 없는 베트남 “浦口”의 모델에 대해 필자는 17세기 전반 베트남의 唯一한 국제무역항, 북부의 흥옌과 중부의 호이안을 거론한 바 있다.²⁸⁾ 조위한이 <조완벽전>에 소개된 ‘흥옌’의 풍경을 보고 만남의 장소로 베트남 포구를 설정하였으리라는 추정은 매우 자연스럽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17세기 초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하였던 호이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도 있다.

조위한은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그리면서 바다와 배, 베트남의 항구를 서사무대로 활용하였지만, 나가사키에서 베트남까지의 이동과정에서 지리정보와 해양체험, 나가사키와 베트남의 장소성에 대한 서술은 매우 미미하다. 대신, 최척과 옥영을 둘러싼 인물들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특히, 일본인 돈우, 중국인 주우, 베트남 항구에 와 있는 외국인 선원들은 친절한 성격에, 최척과 옥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우호적인 인물들로 그려졌다.²⁹⁾ 이는 조위한이 베트남 장면에서 공간의 새로움과 해양체험의 묘사가 아닌, ‘민간인 포로의 고국 귀환’이라는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포로실기 <조완벽전>에 기록된 임진왜란 민간인 포로 조완벽의 항해와 남양체험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위한의 소설 <최척전>의 포로서사 및 문학공간 설정이 <조완벽전>과 어떻게 상

28) 권혁래, 앞의 논문(2008), pp.226-229.

29) “돈우, 주우, 외국인 선원, 늙은 호병 같은 우호적 인물들의 ‘인간에’와 ‘동아시아인의 연대의식’이 있어 옥영과 최척은 베트남 포구에서 상봉하고, 20년 뒤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 김현양의 분석은 탁월하다. 김현양, 「<최척전(崔陟傳)>, ‘희망(希望)’과 ‘연대(連帶)’의 서사-‘불교적 요소’와 ‘인간에’의 의미 층위에 대한 주제적 해석」,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pp.83-96.

관있는지에 대해 상론하였다.

<조완벽전>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한 결과, 조완벽은 진주의 명문가의 후예이며, 일본에 잡혀가서는 1604년부터 1606년까지 교토의 영향력 있는 상인이자 당대의 명문가로 유교적 소양이 풍부한 집안인 스미노쿠라(角倉) 가문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스미노쿠라 료이(角倉了以)의 주인선을 타고 베트남 등지를 다녀왔다. 그는 1607년 귀국 후 진주에서 벼슬을 하던 김윤안에게 자신의 겪은 일을 이야기했으며, 김윤안이 구술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1611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정사신, 이준, 이수광 등이 <조완벽전> 등을 기록하여 조선 지식인들에게 베트남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밝혀졌고, <조완벽전>을 바탕으로 조위한이 <최척전>을 구상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를 논하였다. 첫째, 조완벽의 해양체험에서 덜 밝혀진 점, 곧 그가 항해와 바다에서 겪은 일에 대해 좀 더 고찰하였다. 이수광은 <조완벽전>에서 조완벽을 무역선원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항해노정 및 항해 도중 겪은 특이한 일들을 주로 기술하였다. 이수광은 항해노정 중 일본 사츠마주, 중국 광둥성, 베트남 흥옌, 필리핀, 류큐 등의 주요 지명과 항해기법에 대해 주로 기록하였다. 원양항해술에 대해 정사신과 이수광은 후풍인(指南針, 鐵鏈, 五綱扇, 日影臺) 같은 기구를 이용해 바람의 방향을 잡고, 해당지역을 파악했음을 기록하였다. 조완벽의 해류에 대한 보고에서 해류가 동쪽으로 거세게 흐르는 것에 대해 “서쪽 바다의 수위가 높고 동쪽이 낮아 그렇다”(海水西高東下)는 인식은 흥미롭다. 조완벽은 자신이 항해 중 여자와 비슷한 괴물, 큰 고래, 용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이중 유룡 이야기는 ‘용오름 현상’에 대한 것으로, 각창선의 뱃사람들이 토네이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정사신, 이수광 등이 기록한 <조완벽전>이 조위한의 <최척전>의 창작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위한이 1621년 지은 한문소설 <최척전>의 문학공간은 흥미로운 점이 많다. 특히 작품의 서사 화폭에 그려진 일본의 狼姑射, 바다, 베트남의 어

느 항구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공간은 이전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필자는 옥영의 일본피로·베트남서사 및 공간설정의 상상력은 <조완벽전>의 독서경험이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조위한은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그리면서 바다와 배, 베트남의 항구를 서사무대로 활용하였다. 나가사키에서 베트남까지의 이동과정에서 지리 정보와 해양체험, 나가사키와 베트남의 장소성에 대한 서술은 매우 미미하다. 대신, 최척과 옥영을 둘러싼 인물들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이는 조위한이 베트남 장면에서 공간의 새로움과 해양체험의 묘사가 아닌, '민간인 포로의 고국 귀환'이라는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1600년 4월 3일, 베트남의 한 항구에서 자유의 몸이 된 옥영이 남편 최척과 함께 향한 곳은 조선이 아닌, 중국 절강성 항주였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며느리를 얻어 1618년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소설은 그렇게 끝났어도 좋았다. 그런데 작가는 20년 가까이 평온하게 살던 최척을 다시 전장으로 떠나보낸다. 심하전투 포로들의 삶을 거론하기 위해서다. 1618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를 공격하자 최척은 명군에 편제되어 요동으로 출병하였다. 그리고 최척은 심하전투에서 패해 후금의 전쟁포로가 되었고, 늙은 호병의 도움으로 1619년 후금의 옥사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육로를 통해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항주에 살던 옥영과 아들 부부는 1620년 배를 준비하여 황해를 건너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작품은 이렇게 '민간인 포로' 옥영과 '전쟁포로' 최척의 귀환과 재회로 끝맺어진다. 전쟁포로 최척의 귀환 장면은 심하전투 때 포로가 된 5,000명 조선군의 고통과 귀환의 열망을 그린 것이다. 전쟁 직후인 1620~1621년, 조정에서 대대적으로 김응하의 죽음과 충렬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벌이고 아무도 심하전투 전쟁포로의 귀환문제를 논하지 않을 때 조위한은 최척의 탈출과 귀환 서사를 통해 전쟁포로의 고통의 귀환에 대한 열망을 그려냈다.

1621년 2월 조위한이 남원 주포에 살고 있을 때 최척이 찾아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해주며 기록해 달라고 했다'는 조위한의 <최척전> 작가 후기는 假託일 것이다. 그런데 조위한이 최척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동³⁰⁾은 이수광이 조완벽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동³¹⁾과 다를 게 없다. 조위한은 이 작가후기를 통해 5,000명 심하전투 조선포로의 무사귀환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점에서 <최척전>은 <조완벽전>에서 포로서사, 나가사키·바다베트남 항구라는 문학공간의 설정, '민간인 포로의 귀환'이라는 주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점에서 제재를 얻고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30) 아! 부모자식, 부부, 시아버지와 장모, 형제 등 온 식구가 네 나라에 흩어져 20여 년간 한스럽게 살았고 적의 나라에 살면서 위험한 상황을 몇 차례나 겪었지만, 마침내 다시 모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과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도다! 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겠는가? 황천후토께서 저들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처럼 기이한 일이 이뤄진 것이 아니겠는가! (噫! 父子夫妻舅姑兄弟, 分離四國, 悵望三紀, 經營賊所, 出入死地, 畢竟團圓, 無知如意, 此豈人力之所致哉? 皇天后土, 必感於至誠, 而能致此奇異之事也. 박희병 표점 교석, <최척전>, p.449.)

31) “무릇 안남 땅은 우리나라에서 수만 리나 떨어져서 예로부터 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바닷길로 멀고 험함에 있어서라 조생은 동쪽 끝에서 저 교남의 땅에 닿기까지 험난한 풍파를 넘어 남만의 나라로 항해하여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온전히 돌아왔다. 실로 전고에 없던 일이다.” (임형택 역, <조완벽전>, 앞의 책 p.259.)

〈參考 文獻〉

- 경 심, 『海槎錄』
- 안정복, 〈趙完壁傳〉, 『木川縣志』
- 이수광, 〈安南使臣唱和問答錄〉, 『芝峰先生集』 卷8
- 이수광, 〈趙完壁傳〉, 『芝峰先生集』 卷23
- 정사신, 〈趙完壁傳〉, 『梅窓先生集』 卷4
- 조위한, 〈崔陟傳〉, 박희병 표장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권혁래, 「〈조완벽전〉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2008.
- 권혁래, 「〈최척전〉의 문학지리학적 해석과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김용태, 「한국 한문학 자료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의 몇 가지 갈래」, 『한문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김태준, 「정유년 포로 조완벽과 기리시탄」, 『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동점』, 한국연구원, 1977.
-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 ‘불교적 요소’와 ‘인간에’의 의미층위에 대한 주제적 해석」,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 남미혜, 「17세기 피로인 조완벽의 안남 체험」, 『한국학논총』 4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6.
- 남미혜, 「정유재란기 피로인 조완벽의 가계와 삶」, 『이화사학연구』 50, 이화사학연구소, 2015.
- 민영대, 「〈최척전〉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민영대, 『조위한의 삶과 문학』, 아세아문화사, 1993.
- 박희병, 「조선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박희병, 「최척전-16-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서경희, 「“조완벽전”에 나타난 이방, 이방인서사의 의미」, 『동방학』 2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 손찬식, 「〈조완벽전〉을 통해 본 지봉 이수광의 월남 인식」,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양승민, 「〈최척전〉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1』, 태학사, 2012.
- 장효현, 「〈최척전〉의 창작기반」, 『고전과 해석』 1,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
- 정규식, 「〈조완벽전〉을 통한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해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방학』 3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8.
- 하우봉,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 『일본사상』 10, 한국일본사상학회, 2006.
- 岩生成一, 「安南國渡航 朝鮮人 趙完璧傳」について, 『朝鮮學報』 6, 奈良: 朝鮮學會, 1954.
- 林屋辰三郎, 『角倉了以とその子』, 京都: 星野書店, 1944.
- 片倉穰, 「趙完璧伝の一研究」, 『朝鮮とベトナム, 日本とアジア: ひと・もの・情報の接触・交流と対外観』, 東京: 福村出版, 2008.

Abstract

A Kidnapped Person and a Sailing Experience Drawn on Jo Wanbyuk-jeon and Choi Cheok-jeon

Kwon Hyeok-rae*

In this paper, I analyzed Jo Wanbyuk's life-story of the kidnapping of Japan in 1597, and discussed in detail how the narrative and literary space of Jo Wihan's novel *Choi Cheok-jeon* is related to Lee Sugwang's *Jo Wanbyuk-jeon*.

Lee Sugwang portrays Jo Wihan in the form of a commercial sailor, and describes mainly the unique things he experienced during his sailing. Lee Sugwang recorded the names of Satsuma, Kwangdung and Heung-yen Viet Nam among the sailing voyages. He said that the western sea was high and the east was low, so the waters flowed from west to east. It also recorded the perception that sailors had about tornadoes.

Jo Wihan read *Jo Wanbyuk-jeon* and got material in terms of the hero named 'kidnapped person', a literary space called the 'Nagasaki-sea-trading ship-port of Viet Nam', and themes of 'the return of kidnapped ones'. And he created his novel *Choi Cheok-jeon* with his imagination.

【Key words】 *Jo Wanbyuk-jeon*, *Choi Cheok-jeon*, Kidnapped person, Nagasaki, Sea, Trading Ship, A Port of Viet Nam, Heung-yen

투고일 : 5월 12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 Assistant Professor of Yong In Univ. / hrkwon3@hanmail.net